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비자가 보으면 보증금이로 내일에는 박정금이로!
●교육자금 수혜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2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나는 오직 나의 허물만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법보단경〉

법회 안내

원각사 (02)742-0085
발원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신행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민덕사 (062)652-4920
연등법회 매월1~3일(음)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칠성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강릉 관음사 (0391)43-2985
거사림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화·목 오후7시
대학생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30분

진주 월경사 (0591)53-6411
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월15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월 셋째 토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인천 무량사 (032)575-3882
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고양 장안사(0344)63-1954
가족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1시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장안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대구 관음사(053)421-3700
불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보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古都 지키자" 전국확산

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추진위 18일발족…102단체 연대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통과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교계와 문화·학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노선 강행방침과 관련, 조계 태고 천태 진각 등 4개 종단 및 산하단체들과 문화·학계등 1백2개 단체가 연대해 도심통과 노선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한상범) 등 85개 불교단체와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등 17개 문화·학술단체들은 지난 18일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대회를 열고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관련인터뷰 4면〉

이날 대회에서 추진위원장에 이기영 한국불교재가회의 이사장, 운동본부장에 윤청광 맑고 향기롭게운동본부장이 선출됐으며 고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등 4개종단 총무원장,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임창순 문화재위원장, 진홍섭 전 이화여대교수 등 12명이 위촉됐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주는 한국인,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의 자랑이요 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라며 "정부가 고도경주 도심에 고속철도를 놓는 것은 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추진위는 또 △기존의 경주통과노선을 즉시 백지화하고 경주도심과 남산에서 15Km 외곽으로 떨어진 새로운 노선과 역사를 설계할 것 △고도보존법, 문화시특별법을 제정할 것 △경주의 선도산 성지와 남산 성보 훼손 등 법난의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발대식과 동시에 시작된 1백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격려의 영, 세계의 자랑 경주남산을 지킵시다'라는 표어의 스티커 보급운동, 전국 순회강연도 갖는다.

한편 경주 경실련은 오는 26일 경주에서 공청회를 열고 기존 경주노선과 건천~화천으로 우회하는 제3의 노선을 관계단체, 시민과 함께 답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부다피아'는 모뎀번호 732-1520~4번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16일 시연회 모습.

전자 게시판 '부다피아' 개통

16~21일 시연 온라인 설법방 CD롬 제작 등 소개

교계 언론사로서는 최초로 독자적인 전산정보망을 구축하고 지난 15일 개통한 현대불교신문(이하 본사) 전자게시판 '부다피아'의 시연회가 지난 16~21일까지 본사1층 책방 여시아문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연회에는 현대불교신문기사를 주제별 호수별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서비스와 주문형비디오 방식으로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불교자료를 CD롬타이틀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다피아를 통해 서로 공유할수 있는 CD롬 타이틀 제작사업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본사는 연말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 부다피아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시범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부다피아는 '모뎀번호 732-1520~4번'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가입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보다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종토세 선거에 이용말라"

월하종정 본지 인터뷰 "총선이전 시행돼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14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불교계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통 사찰의 종토세(宗土稅)가 즉각 면제 되어야 하고, 정치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늦어도 내년 총선 이전에는 반드시 면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계의 잇따른 종교계 인사들의 접촉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과 함께 사찰 종토세 면제의 사안이 자칫 불교계에 대한 선거 선심용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시각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하스님은 "사찰의 종토세 면제를 더이상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지난 대선때 대통령이 직접 공약한 사항인 만큼 당연히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사찰 소유의 농지에 대한 토지 실명제에서 사찰명의의 등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삼보정재를 호지한다는 일념으로 전종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한다"고 당부했다.

◇ 월하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정변전=고영배 기자〉

월하종정 친견법회 '성황'

본지 창간 1돌기획…전국서 250명 동참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법문을 듣고자 전국에서 모인 2백 50여 사부대중에게 "불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처님께서 늘상 하신 가르침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기획한 '조계종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의 첫 행사로 열린 이날 법회는 단풍이 누릇불긋 막 물들어가는 통도사 경내 종정스님이 주석하는 정변전 앞마당을 꽉 메운 가운데 마련됐다.

기획국장 시명스님 교무국장 재원스님이 배석한 이자리에서 월하스님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말은 쉬운 것같아도 행동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 한마디에 일체 진리가 들어있다"고 설했다.

이날 동참자들은 한결같이 "종정스님을 친견하는 것만도 복인데, 귀한 법문까지 설해주셔서 환희심이 난다"며 기뻐했다.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 일정

△ 2차 (10월 28일 토요일) : 해인총림 혜암 방장
△ 3차 (11월 4일 토요일) : 덕숭총림 원담 방장
△ 4차 (11월 18일 토요일) : 조계총림 송천 방장
동참방법 : 제일은행 계좌 131-10-000570 (예금주 : 수미산여행사) 문 의 : 현대불교 722-4162~3

목어

옛날에 한 앵무새가 잠시 다른 산에 날아가 머문 적이 있었다. 그 산에 사는 새들과 짐승들은 앵무새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했다. 얼마후 앵무새는 자기가 살던 산으로 돌아왔다. 몇달이 지나 그 산에 불이 났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앵무새는 날개에 물을 묻혀 공중으로 날아올라 날개털에 묻은 물로 그 산불을 끄려고 수없이 산을 왕래했다. 이를 본 천신이 말했다.

"한심하구나, 앵무새야. 그 큰 산의 불을 어떻게 두 날개에 묻은 물로 끌 수 있다는 것이냐"

"저도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천신은 감동하여 곧 비를 내려 불을 꺼주었다. (구잡비유경)의 이 이야기는 감사와 보은을 가르치고 있다.

창간 1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는 은혜를 아는 앵무새의 마음으로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날개에 묻은 물로 불을 끄려했던 앵무새의 그-지성을 본받아 하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지면에 풀어 내 오탁악세에 연꽃을 피울 것을 발원한다.

'현대불교'가 아무리 의욕을 갖고 신문을 만들어도 읽고 성원해주는 독자가 없었다면 1년만에 이처럼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까.

'현대불교'에 대한 독자의 사랑은 법담을 세우고 법종을 주조하는 그 이상의 불사이며 법공양이다. 때문에 독자제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필자와 광고주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여러분에게도 공덕을 돌린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앎은 大덕의 근본이며 선업을 여는 첫문'이라고 하셨다.

'현대불교'는 그 말씀을 지면속에 되새김하면서 더 좋은 신문이 될 것을 한번 더 다짐한다.

감사 드립니다

만해스님 시집 '님의침묵' 판본전시 20일-11월3일 책방 여시아문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삼성화재만이 드릴 수 있는 新서비스 - ①

"이거, 어쩌나?"

몸은 홍콩인데, 짐은 런던!
그런데, 영어는 Thank you가 고작이니…

휘익 -
3시간의 비행끝에 홍콩에 도착한 김 대리 -
입국 수속도 마쳤고 이제 짐만 찾으면
휴가가 시작되려는 순간.
앗! 그런데 이게 어째된 일이람? 기다려도 기다려도
짐은 나오질 않고.
게다가 속이 푹 익히고 머리도 핑 도는 게 급체할 판인데,
이 낯선 공항에서 손가락을 딸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은 어떻게 찾고
병원은 어떻게 가나요? 누구 도와 줄 사람 없나요?…"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이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께만 제공해 오던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6월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께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긴급서비스 전문회사인 AEA社와
제휴하여 의료안내, 여행안내 서비스에서
사고처리 안내까지 -
고객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안내 서비스 — 전문의 안내, 의료시설안내, 의료인과의 전화 의료상담안내, 치료알선, 국내가족과의 긴급연락
여행안내 서비스 — 여권 재발급 안내, 분실물 회수알선, 출입국비자안내
사고처리안내 서비스 — 보상을 위한 현지 구비서류안내, 보상절차 안내

삼성화재 '우리말 도움서비스' -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좋은 보험회사
삼성화재만의 新서비스입니다.

■ 우리말 도움서비스 이용법
개인연금보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발급되는 카드의 전화번호를 돌리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전화 : 758-7334~6

아름다운 인생을 생활에 관 힘을
SAMSUNG 삼성화재